



2연승 전북 vs 무패 울산

韓 축구, 25위 세 계단 하락

두 차례 A매치 전패 탓

최근 두 차례 친선경기에서 모두 진 한국 축구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25위로 떨어졌다. 한국은 FIFA가 1일(한국 시간) 발표한 남자 축구 세계 랭킹에서 25위에 자리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성적을 반영해 1월 발표한 새해 첫 랭킹에서는 22위였으나 이번 세 계단이나 하락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FIFA A매치 기간 코트디부아르에 0-4로 완패하고, 오스트리아에도 0-1로 패한 게 순위 하락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보다 앞선 순위 국가 중에서는 하라카 목이 가장 크다. 랭킹 포인트는 1588.66점이다.

코트디부아르전 패배로 5.73점, 오스트리아전 패배로 5.05점이 깎였다. FIFA는 이달부터 A매치 결과를 실시간 반영해 랭킹 및 포인트를 발표한다.

아시아 국가 중 순위가 가장 높은 일본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A매치 기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상대로 각각 1-0 승리를 거둔 일본은 1660.43점으로 순위가 19위에서 18위로 한 계단 올랐다.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일본, 이란(21위)에 이은 3위를 유지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에서 한국과 만날 멕시코는 한 계단 오른 15위를 차지했다.

100번째 '현대家 더비'... 선두권 경쟁 고비

주말 달굴 K리그 빅매치



A매치 휴식을 보내고 프로축구 K리그1이 재개되는 이번 주말에 올 시즌 첫 '현대家(家) 더비'가 열린다.

전북 현대와 울산 HD가 4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하나은행 K리그1 2026 16라운드에서 맞붙는다.

이번 시즌 처음이자 정규리그(플레이오프 포함) '100번째 현대가 더비'다. 앞선 99번의 대결에서는 전북이 38승 24무 37패로, 딱 1승을 더 거뒀다. 두 팀의 히비카가 게 엇갈렸던 지난해에는 세 차례 맞붙어 전북이 2승 1패로 앞섰다.

전북은 지난 시즌에 2021년 이후 4년 만이자 통산 10번째 K리그1 정상에 올랐다. 반면 울산은 리그 4연패에 도전했으나 시즌 중 감독을 두 차례나 바꾸는 등 우려

곡절 끝에 9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올 시즌 시작은 또 달랐다. 정정용 감독 체제로 새 출발 한 전북은 개막 후 3라운드까지 2무 1패로 승리가 없었다.

이후 FC안양을 제물로 힘겹게 첫 승리를 수확하다니 올 시즌 우승을 다룰 후보로 꼽히는 대전하나시티즌을 누르고 2연승을 거둬 승점 8로 순위를 3위로 끌어올렸다. 구단 레전드 출신인 김현석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울산은 개막 이후 3연승의 신바람을 냈다.

직전 라운드에서 김천 상무와 0-0으로 비겨 연승은 중단됐으나 무패를 이어가면서 한 경기를 덜 치르기도 승점 10을 쌓아 2위를 달리고 있다.

울산은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전북과 시즌 첫 대결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3승 2무의 성적을 냈다.

하지만 깨뜨려야 할 '전주성(전주월드컵

4일 오후 2시 '전주성 맞대결'

전북 38승 24무 37패, 1승 앞서

물오른 이동준 공격력에 기대

울산 원정 5경기 2무 3패 기록

'무승 징크스' 깨기 운명 건 일진

경기장의 애칭) 징크스가 있다.

울산은 전북의 안방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22년 3월6일 1-0으로 승리한 뒤로 5경기를 치러 2무 3패만 기록했다. 최근에는 2연패 했다.

전북은 이동준, 울산은 야고에게 각각 기대를 건다. 이동준은 개막전에서 부천을 상대로 2골을 기록한 데 이어, 5라운드 대전전에서는 결승골을 터뜨리는 등 폐조의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야고는 김천전에서 침묵하기 전까지 개막 이후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이번 시즌 4골로 K리그1 득점 선두를 달린다.

국가대표 골키퍼인 전북 송병근과 울산 조현우의 자존심 싸움도 또 하나의 볼거리다.

5일 오후 2시 안양종합운동장에서는 과거 연고지 이전으로 관계가 얽힌 FC안양과 FC서울이 격돌한다. 안양(승점 5)은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로 주춤한 반면 서울

K리그1 16라운드 일정

시간	경기	구장
4일	14시 제주 vs 부천	제주월드컵경기장
	전북 vs 울산	전주월드컵경기장
	16시30분 포항 vs 대전	포항스틸야드
5일	14시 안양 vs 서울	안양종합운동장
	16시30분 인천 vs 김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GS "승기 잡았다" vs 도공 "뒤집기 자신"

GS칼텍스, 준PO·PO 관문 뚫은 여세 몰아 챔프 1차전 승리 도로공사, 정규리그 1위 직행하고도 안방서 딜마... 3일 2차전



프로배구 2025-2026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5전 3승제) 우승 향배가 예측 불허의 혼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규리그 3위로 준플레이오프(준PO)와 플레이오프(PO) 관문을 뚫은 GS칼텍스가 정규리그 1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적지에서 기선을 제압한 것.

GS칼텍스는 1일 경북 김천체육관에서 열린 챔프 1차전 원정경기에서 33점을 사냥한 '쿠바 특급' 지철 실바(등번호 5)를 앞세워 3-1로 이겼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남은 4경기에서 2승을 추가하면 3관왕 위업을 이뤘던

2020-2021시즌 이후 5년 만에 챔피언전 우승컵을 들어 올린다.

반면 홈구장에서 일격을 당한 도로공사는 안방 2차전에서 반격을 노린다.

양 팀은 하루를 쉬고 3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2차전을 벌인다.

3, 4차전은 GS칼텍스의 안방인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고, 최종 5차전까지 갈 경우 김천체육관에서 다시 치러진다.

GS칼텍스는 챔프 1차전 승리로 승률 57.9%의 우승 확률을 잡았다. 지난 시즌까지 19차례 챔피언전에서 1차전 승리 팀이 11차례 우승했기 때문이다. 7전 4승제를 뺀 5전 3승제 챔피언전만 놓고 보면 1차전 승리 팀이 17차례 중 10차례(확률 58.8%) 우승했다.

GS칼텍스는 올 시즌 도로공사와 정규리그 상대 전적에서 1승 5패의 절대 열세를 딛고 1차전에서 웃었다.

특히 정규리그 때 당한 김천 원정 3전 전패 징크스를 깨 2차전을 같은 장소에서 치르는 GS칼텍스로선 큰 자신감을 얻었다.

GS칼텍스는 특급 공격수 실바가 1차전에서 양 팀 최다인 33점을 올리며 맹활약했다.

홍국생명과 준PO 42득점, 현대건설과 PO 1차전 40득점, 2차전 32득점에 이은 4경기 연속 과녁 쇼를 벌인 것이다.

실바가 경기 도중 무릎 불편 증세를 보이며 치료를 받는 게 카메라에 포착된 가운데 하루 휴식으로 재충전하고 어떤 활약

을 펼칠지가 2차전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다행스러운 건 아웃사이드 히터진의 권민지(14점)와 유서연(13점)이 1차전에서 나란히 두 자릿수 득점으로 공격을 분산했다는 점이다.

도로공사는 김종민 전 감독을 챔피언전 직전 내진 대가를 토크로 치렀다.

지난달 31일 계약 만료를 이유로 정규리그 1위를 이끈 김 전 감독에게 지휘권을 주지 않고 김영래 수석코치에게 맡겼지만, 경기력을 극대화하지 못하면서 1패를 안은 것.

김영래 감독대행은 중책을 떠안은 부담감 때문에 몸무게가 6kg 정도 빠졌으며 마

음고생을 드러냈고, 선수들도 감독 부재 탓에 하나로 뭉치지 못했다.

외국인 주포 레티치아 모마 바스코(등번호 3)가 31점을 뽑았지만, 삼각편대를 이룬 타나차 쑤샷(6점·등번호 7)과 안재현(7점)이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다.

도로공사는 홍국생명과 챔프 1, 2차전 패배 후 3, 4, 5차전을 잡아 '디버스스왑'으로 우승했던 2022-2023시즌 이후 3년 만에 정상 복귀를 노린다.

도로공사가 역전 우승을 달성한 3년 전처럼 반격에 성공하며 기사화될지 아니면 GS칼텍스가 봄 배구 4연승 여세를 몰아 우승까지 내달릴지 2차전 결과가 주목된다.



다시 새겨보는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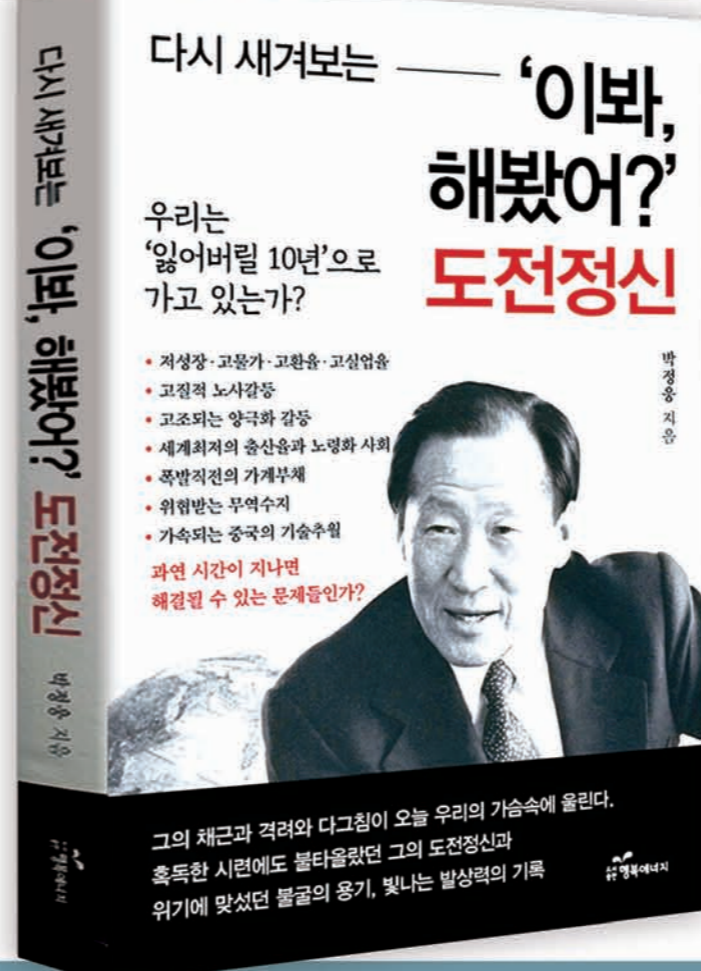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세계적 격동의 시기, 다시금 되돌아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삶의 궤적

중동 건설시장 도전,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조선소 건설 도전, 현대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발자취를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뒤따라간다.

단순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의 위업을 좇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경련 간부로서 직접 보고 들은 정주영 회장의 생생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 속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도전정신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한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혁신과 성장을 가져왔던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 경영학의 태두 피터 드러커조차도 극찬했다고 알려진 그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감과 용기를 심어 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박정용 지음 | 348쪽 | 25,000원 | 행복에너지



Part 1 멈출 수 없는 도전

- 01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시대의 '이단아'
- 02 '바퀴 달고' 세계를 누비는 국산 자동차의 오늘과 내일
- 03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든 뜨거운 열사의 땅 중동 건설시장
- 04 한국인의 자력을 세계에 알린 전시장 조선소
- 05 40년 숙원 고리에 불을 당긴 현대 제철
- 06 가슴에 묻고 간 평생의 염원 통일
- 07 중국, 가깝고도 멀 수밖에 없는 나라
- 08 국제무대 등단의 무대 전경련 회장직

Part 2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놓은 다리들

- 01 경제성장을 위해 절실했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건설
- 02 자동차 독자개발을 놓고 벌인 미국과의 비밀 담판
- 03 모두 안 된다던 조선소 발상,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
- 04 석유파동으로 빈사 상태가 된 한국경제를 구한 기성천외한 발상, 중동 건설 진출
- 05 88서울올림픽 유치기 가능하다고 믿었던 천하에 오직 한 사람

Part 3 그의 정신, 그의 기성

- 01 통일에 대한 갈망과 집념은 그에게 하나의 신앙이었다
- 02 정치색인, 더 잘사는 사회... 통일을 위해 단졌던 비장한 출사표
- 03 평생 노동자의 가슴을 품고 살았던 '성공한 노동자'
- 04 돈 액수의 자릿수보다 쓰임 가치를 쟁겼던 '큰손'과 '구두쇠'
- 05 앞서는 비결, 남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행동해야
- 06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교수 본 정주영
- 07 세기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

Part 4 인간 정주영

- 01 정주영·이병철, 갈등과 아름다운 화해
- 02 만능 엔터테이너 재벌 총수의 18년
- 03 건강관리 비법과 아침레스토랑의 건
- 04 단순화와 직관력의 달인